지속가능한 맛남 "착한밥상서 미식 탐구 즐겨요"

'광주쿡폴리 미래의 식탁' 성황
동구 산수동 도시재생콘텐츠
커피·전통주 등 '팝업 다이닝'
"탄소저감 등 식문화 논의를"

지난 14일 동구 산수동 콩집에서 큐레이션 플랫폼 '아워플레닛'의 다이닝 강연이 진행되고 있다.

곡성 멜론과 튀긴 완도 백새우를 버무린 타이 샐러드, 먹고 남은 멜론껍질 피클과 페낭식 오리 커리, 고려인 전통 떡갈비와 당근 김치. 고흥 유자 샹티크림을 얹은 양림동 피칸파이….

상상만으로도 침이 고이는 이 음식에는 광주·전남 지역의 미식 풍경이 담겨 있다. 여기에 탄소저감 등을 고려한 식재료 선정과 조리과정은 기후위기 시대, '착한 밥상'을 차려낸다. 광주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푸드 큐레이션 플랫폼 '아워플레닛'을 초청해 이른바 '로컬 오디세이'라 불리는 시식 형식(다이닝)의 강연을 지난 14일 동구 산수동 콩집에서 선보였다.

아워플레닛의 장민영(전 KBS 한국인의밥상 작가) 대표와 김병일 셰프는 이날 '지속가능한 식탁을 위한 미식탐험'을 주제로 한 여러 코스요리는 선보였다. 단순한 시식 행사가 아니다. 지구환경을 지킬 수 있는 조리와 음식은 무엇인지, 대책을 논의하는 '다이닝 강연'인 것. 각각의 메뉴에 숨겨진 스토리 설명은 맛이 풍미를 올려주는 덤이다.

첫 번째 메뉴인 '타이 샐러드'에 사용된 완도 백새우를 예를 들어보자. 이 음식은 흔히 먹는 대하나 흰다리새우 대신 주로 젓갈로 사용되는 완도 백새우를 활용했다는 것이 포인트인데 다른 지역이나 나라가 아닌 우리 지역의 농수산품을 사용하면서 운송을 위해 필요한 탄소 등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여기에 특정 개체만 소비하는 것에서 비롯된 멸종위기, 양식에 사용되는 항생제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막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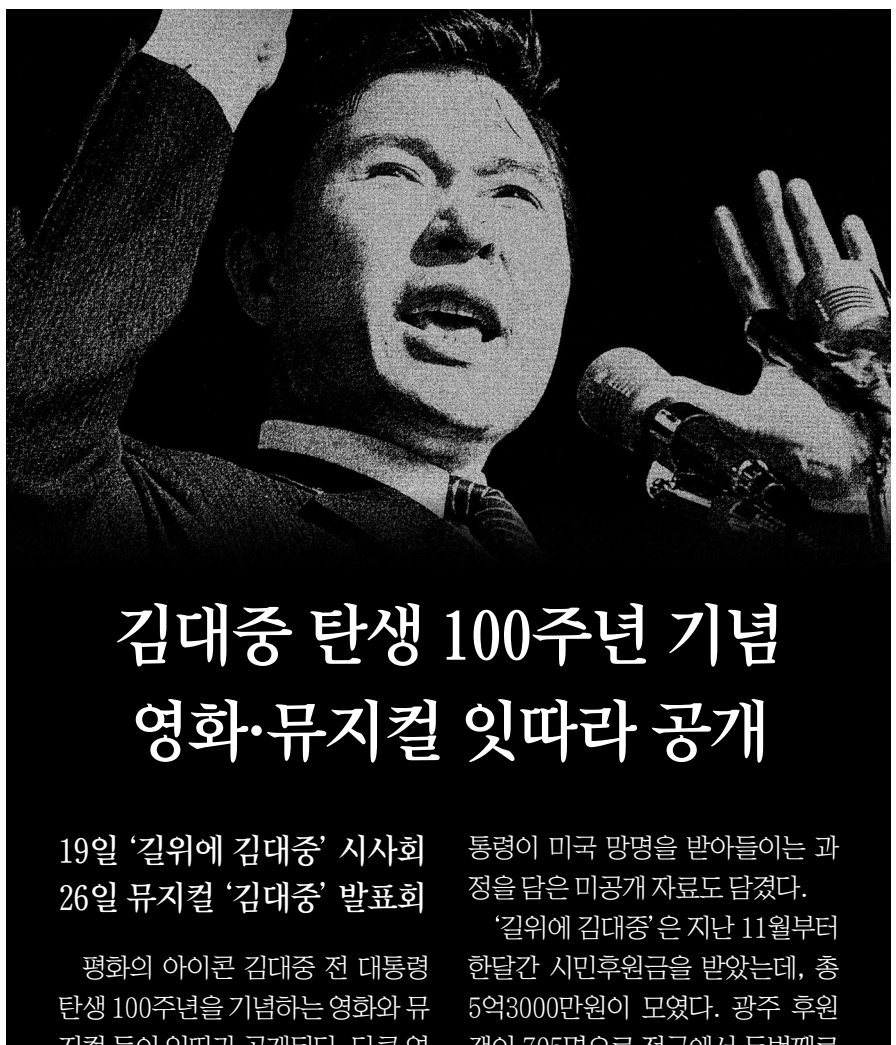
두 번째 음식 오리 커리 또한 지구환경을 고려한 메뉴다. 첫 번째 메뉴 타이 샐러드에 사용되고 남은 멜론껍질로 피클을 담아 곁들어 푸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했다. 밥 역시 흑보리 등 해남 토종쌀을 사용해 지구생태계 다양성을 고려했다.

행사가 진행된 장소 또한 특별하다. 산수동 콩집은 (재)광주비엔날레가 지난 2017년 조성한 제3차 광주폴리 중 한 곳이다. 카페와 바 형태의 유리온실인 '콩집'은 한동안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었는데, 동구는 앞으로 이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산수동 도시재생 거점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장민영 대표는 "광주의 풍경을 코스요리로 그려냈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광산구에 모이면서 조성된 동남아음식 거리를 여행하면서 타이샐러드를 생각했고 광주 대표 음식 오리탕을 모티브로 오리 커리를 만들었다. 광주 고려인마을의 풍경은 그들이 먹는 전통 떡갈비와 당근 김치, 근대시기 외국 선교사들이 양림동에 심은 피칸나무 풍경은 피칸파이로 재구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수동 도시재생 연계사업 일환의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식탁을 위한 미식탐험'을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진행했다. 강연은 '식탁의 미래_지속가능한 미식의 탐험'을 주제로 4개의 강의와 간단한 시음·시식을 병행했다. 세부적으로 △기후위기 시대 위협받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전통주에 지속가능 미래와 로컬을 담다 △지속가능한 식탁을 위한 미식 탐험과 광주의 미식 풍경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와인의 미래와 소비 등 4가지 주제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영화·뮤지컬 잇따라 공개

19일 '길위에 김대중' 시사회
26일 뮤지컬 '김대중' 발표회

평화의 아이콘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와 뮤지컬 등이 잇따라 공개된다. 다큐 영화 '길위에 김대중'의 광주지역 언론시사회가 19일 오후 2시와 7시에 서구 CGV유스퀘어점 10관에서 열리며 내년 1월 개봉된다. 또 창작 뮤지컬 '김대중' 제작발표회가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길위에 김대중' 언론시사회에는 민환기 감독을 비롯해 이은 명필름 대표, 최낙용 시네마 6411 대표, 지역 원로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다.

'길위에 김대중'은 청년 사업가 출신 김대중이 고초를 겪으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1987년 대선 후보로 나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장현성 배우가 내레이션을 맡아 김 대통령이 걸어온 궤적을 울림있는 목소리로 소개한다. 김 전 대통령이 미국 망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담은 미공개 자료도 담겼다.

'길위에 김대중'은 지난 11월부터 한달간 시민후원금을 받았는데, 총 5억3000만원이 모였다. 광주 후원객이 705명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 후원금은 상영관을 확보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내년 1월 6일 올해 성인이 된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무료시사회도 예정돼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창작 뮤지컬 '김대중'의 제작발표회는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에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전남문화재단이 주최하고 협동조합 손에손에가 주관한 뮤지컬 '김대중'은 고난 속 민주주의 시대를 꽃피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인생을 다루고 있다. 섬마을 소년의 모습부터 30년 야당 정치인의 세월까지, 김 전대통령이 견더낸 굴곡의 역사를 다룬다.

공연 관람은 전석(300석) 무료로 가능하다. 예약은 010-8451-6149로 문의.

도선인 기자

"오늘은 중학생 감독이 주인공" 중딩영화제 개막

21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방송 분야 꿈나무 발굴을 위한 '2023 중딩영화제(사진)'를 오는 21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주최하고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중딩영화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영상 창작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전국 유일의 중학생 청소년을 위한 영화제이다.

올해는 호남권을 비롯해 서울, 강원, 충북, 제주 등 전국 16개 권역 116편의 작품이 접수돼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1, 2차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13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대상을 비롯한 5개 부문의 수상 결과가 행사 당일에 발표된다.

시상 부문은 대상에 방송통신위원장상(1팀), 최우수상에 광주시교육감상(2팀)과 전남도교육감상(2팀)이, 우수상에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상(4팀), 장려상에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상(4팀)이 수여되며 총 500만원 상당의 부상도 지급된다.

'2023 중딩영화제' 1부는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포문을 연다. '넥스트 시네마' 주제로 한 2023 학교미디어교육 성과공유회를 통해 실제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 감독들의 주요 작품을 감상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가진다. 2부는 '중딩영화제 시상식'으로 오후 3시부터 진행하며 수상작 13편에 대한 시상이 이뤄진다. 모든 행사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중계된다.

도선인 기자

완도수목원, 오늘부터 '설중 동백 향연' 겨울 풍경 수채화전

윤창숙 작가 초대개인전

전남도 완도수목원이 산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목포지역 윤창숙 작가의 초대 개인전 '블루밍 인 윈터'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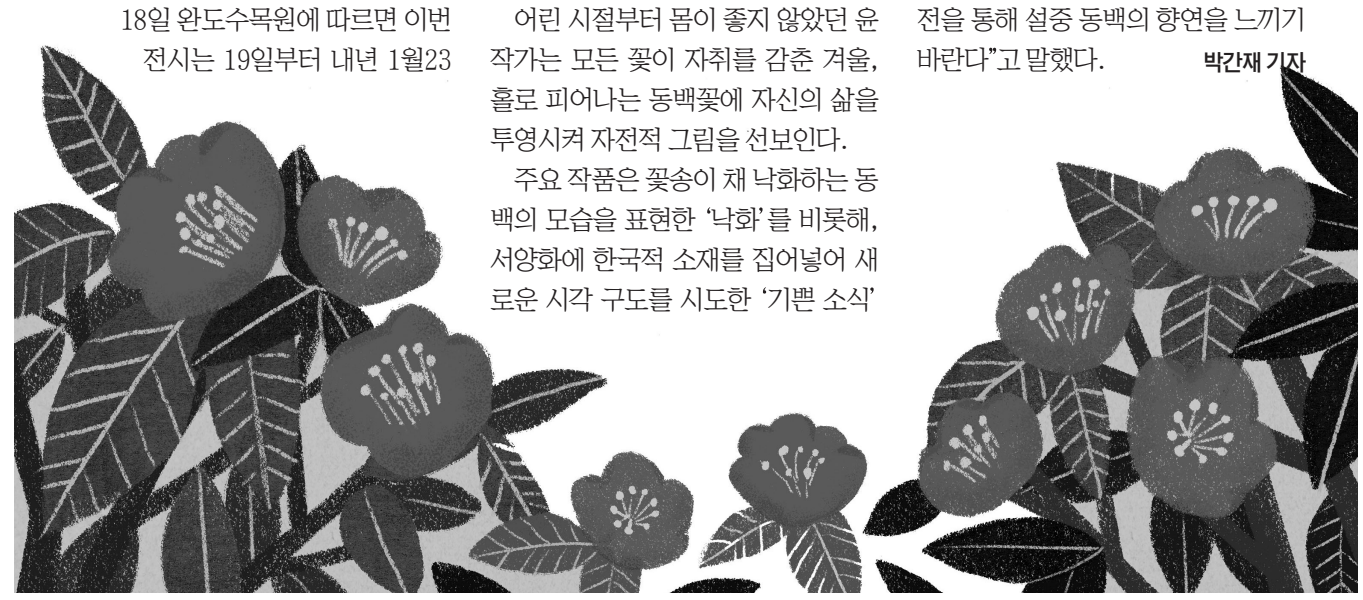
18일 완도수목원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19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이어진다.

전시에선 동백꽃과 겨울 풍경을 주제로 한 수채화 25점을 만나볼 수 있다. 동백은 완도수목원에 자생하는 난대수종이자 12월부터 개화를 시작하는 대표적인 겨울꽃이다.

어린 시절부터 몸이 좋지 않았던 윤 작가는 모든 꽃이 자취를 감춘 겨울, 홀로 피어나는 동백꽃에 자신의 삶을 투영시켜 자전적 그림을 선보인다.

주요 작품은 꽃송이 채 낙화하는 동백의 모습을 표현한 '낙화'를 비롯해, 서양화에 한국적 소재를 집어넣어 새로운 시각 구도를 시도한 '기쁜 소식' 등이다.

윤창숙 작가는 공주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석사를 졸업하고, 목포미술협회, 목포환경미술협회, 목포·영주 교류전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진호춘 완도수목원장은 "이번 초대전을 통해 설중 동백의 향연을 느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